5年生以上 課題文④

 **바람의 빛깔**

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.

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.

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

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.

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

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.

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

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.

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

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.

그 한적 깊은 산속 숲 소리와

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.

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

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

알 수가 없죠.

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

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.

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

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.

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

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.

출처 : 포카혼타스 주제가 <바람의 빛깔> 일부 발췌/ 스티븐 슈왈츠 작사

カラー・オブ・ザ・ウィンド

だけが。

そうください。

ももさえも

をことができます。

とだからと

しないでください。

あなたがのをと

が。

をオオカミのは

をとしているのかか？

あのひっそりとしたののと

のはかか？

あののが

どこまでなるかをみないと

。

でも

それはなことです。

がくれるを

そういうがまさにです。

のをにことで

はになれます。

引用 : ポカホンタス主題歌<カラー・オブ・ザ・ウィンド> 一部抜粋/スティーヴン・シュワルツ作詞